

#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盧基植\*

<목 차>

1. 머리말
2. 몽골 차하르부의 와해
  - 1) 차하르부의 서친과 립단 칸의 사망
  - 2) 립단 칸 사망 후 차하르의 동요
3. 후금의 차하르 병합
  - 1) 유민 수습
  - 2) 후금의 차하르 투항민의 편성
4. 립단 칸의 아들 콩고르의 복속
5. 맺음말

## 1. 머리말

만주의 大清 선언(1636)에 대해서는 清朝開國史에서조차도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遼東 진출(1621)처럼 對明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후에 入關(1644)이라는 중국 정복과 정상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大(後)金 건국(1616)이 만주의 정치체제 발전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면 大清의 선언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하는 의미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요동 진출과 입관이라는 대명 관계의 변화에는 金과 淸이라는 정치체제 상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대개 大清 선언은 홍타이지의 개혁 정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치적으로는 八旗 체제에서 중국식 관료제로 전환하고 군주권을 강화하였으며, 대의

관계에서는 明 內地와 朝鮮을 정벌하였고 몽골을 복속시켰다는 점 등이 흥타이지가 이룩한 성과로 거론된다.

흥타이지가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만주 한이 되었을 때 後金 체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遼東漢人 지배는 이미 불안정해졌고 대명 공격은 담보 상태에 빠져 오히려 명의 역공을 받을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瀋陽으로 천도하여 이의 극복을 꾀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대명 전투에서 부상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후금은 漢人 農耕의 부진과 대외관계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궁핍과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경제 상의 불안정과 함께 내부 정치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다. 누르하치의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통합이 유지되었던 팔기체제는 누르하치가 사후 八旗共議制로 전환되면서 분열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흥타이지는 정치체제의 통합(후금체제의 붕괴 방지)과 대외경제의 확대(요동고수)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흥타이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내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북방민족 사회 발전의 특징 상 내부의 정치 권력은 대외관계와 긴밀하게 관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大清 선언을 대명 관계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흥타이지가 버일러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관료제를 도입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외경제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경제적 기반은 흥타이지가 대명관계에서 이룩한 성과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흥타이지는 대명관계에서 경제적 확대를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의 권력집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흥타이지가 후금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은 몽골과의 관계였다. 먼저 몽골과의 반릭단 연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 몽골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통과해 명의 만리장성을 넘어 내지를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타이지는 만몽연맹의 맹주로서 몽골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립단한이 죽은 후 자중지란에 빠진 차하르부를 병합하였다.

차하르부의 병합은 후금에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기회

를 제공했다. 만주의 몽골 병합이 만주의 대외관계와 정치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후금이 차하르부를 손쉽게 병합할 수 있었고, 이들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몽골 차하르 병합이 어떤 이유에서 후금의 大清으로의 전환, 홍타이지의 칭제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 2. 몽골 차하르부의 와해

### 1) 차하르부의 서천과 립단 칸의 사망

립단 칸은 1627년경 遼東 西北邊을 떠나 서천하여 몽골 우익에 대한 통일 전쟁을 시작한 후 투메드부를 복속시키고 歸化城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곳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몽골 통합 강화 정책과 대명경제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對明 경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통합은 실패하였다. 撫賞銀은 明朝의 거절로 더 이상 획득할 수 없게 되었으며, 明 변경 약탈도 내부 통합체제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後金과 몽고의 연맹이 長城 동부지역을 위협하고 있었던 점도 립단 칸이 대명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했다. 대외경제의 안정과 확대가 없는 정치체제 통합은 유지될 수 없었다. 립단 칸은 몽고 한의 정통성만을 내세워 단기간에 몽고의 통일을 시도하였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립단 칸은 青海 지역으로 이동하여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통합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립단 칸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차하르에 통합되어 있던 각 유목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다. 일부는 립단 칸을 따라 青海로 이동해 갔고 일부는 따라 가지 않았으며 또 일부는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되돌아 왔다. 립단 칸을 따라 갔던 자들도 립단 칸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歸化城 지역으로 되돌

아 왔다. 이들은 明朝로 투항하거나 때마침 출정한 後金에게 투항하는 등 새로운 대외 관계를 모색하였다.

릭단칸이 歸化城을 떠나 다시 西遷한 이후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明의 변경에 와서 求款하거나 약탈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을 뿐이었다. 『明史紀事本末補遺』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당시 차하르의 활동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1633년 5월 립단 칸이 오르도스와 함께 5만여가 清水를 공격하고 屯堡에 들어와 수십 리를 살육하였고, 또 얼마 후에는 延綏를 공격하였다. 7월에는 1천 기가 延綏, 寧夏를 공격하였다. 아마도 이 때 립단 칸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明의 변성을 공격하였던 것 같다. 1634년 1월에는 차하르 3천 騎가 水口를 침범하였다. 2월에는 차하르 립단 칸이 멀리 이동하였고 그 部衆이 離散하였다.

後金은 립단의 통일 시도에 반발하는 세력들과 반립단 연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립단칸의 디 던 後金 측의 기록에 의하면 1632년 홍타이지가 몽고 차하르국 립단 칸을 정벌하였을 때 립단 칸은 인심이 흉흉한 것을 보고 國勢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竄逃計’를 써서 黃河를 건너 서쪽 圖白忒 부락으로 도망하였다. 가축은 많이 죽었고 民은 립단 칸의 포학을 견디지 못해 반항하고 따라가지 않고 도중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10에 7·8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잡아 먹고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여 연달아 궤산하였다.<sup>2)</sup> 또 립단 칸을 따라 가지 않은 자들 중에서 립단 칸의 妹婿 도노이 이르커 추후르(朵內額爾克楚虎爾)는 상가르자이(桑噶爾寨)를 죽이고 립단 칸의 妻를 데리고 明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며, 또 額爾克多克新도 립단 칸의 다른 妻를 데리고 榆林 서쪽 甘州의 동쪽을 통하여 明으로 투항하였다.<sup>3)</sup> 립단 칸의 사망을 후금이 알게 된 것은 1634년 윤8월초로 후금으로 투항해 온 차하르인에 의해서였다.<sup>4)</sup>

1) 『明史紀事本末補遺』卷三, 『播漢寇邊』.

2) 『太宗實錄』卷 19, 天聰 8年 6月, 247쪽. : 『清初內閣史院滿文檔案譯編』(上), 天聰 8年 6月, 86-87쪽.

3) 『太宗實錄』卷 20, 天聰 8年 閏8月 庚寅, 261-263쪽.

4) 『太宗實錄』卷 20, 天聰 8年 閏8月 庚寅, 161-163쪽. 『國權』, 卷 93, 思宗 崇禎 7年 4月 辛酉

릭단 칸의 사망에 관하여 각종 자료가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왜 티벳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때문에 清朝의 기록에 따라 1632년 後金の 정벌로 歸化城에서 쫓겨나 靑海로 도망하다가 도중에 병사했다고 하기도 하고, 後金の 정벌과 관계 없이 립단 칸이 몽고 내부의 라마교 紅毛派와 黃毛派의 종교 전쟁에 개입하였다가 靑海 지역에서 病死했다는 說, 정치적인 통일과 종교적인 면이 복잡하게 섞여 靑海 지역을 공격하였다는 說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萩原淳平은 靑海는 알단한 이래 라마교의 도입을 위해 몽고 右翼이 지속적으로 경영하려고 노력했던 곳이고, 립단 칸의 공격으로 歸化城을 상실한 몽고 右翼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거점이었으므로 립단 칸이 몽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후로 靑海를 공격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립단 칸은 後金에게 쫓겨 간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靑海로 거점을 옮기려고 하였다고 보고, 오히려 홍타이지가 립단 칸의 西遷을 틈타 불난 집에 도둑과 같이 립단 칸이 이동한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그러나 립단 칸이 통일을 시도하면서 왜 통일 체제 유지에 중요한 歸化城과 대명 관계를 포기하였으며, 차하르의 일부 세력은 왜 이탈하여 립단 칸을 따라 가지 않았는지, 립단 칸이 사망한 후 차하르는 왜 즉시 통합체제가 붕괴되었는가 등을 생각하면 립단 칸이 靑海 정복을 그의 통일 사업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기보다는 통일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2) 립단한 사망 후 차하르의 동요

립단 칸이 사망하기 전후에 차하르부가 와해되었음은 명의 북변에서 나타

條에서는 '初虎墩兒罕慙惠宜大者數年, 至是卒, 子小, 部落無所歸, 多乞降'이라고 하여 1634년 4월 이전에 립단한이 사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萩原淳平은 립단한의 사망을 1634년 2월이나 3월경이라고 추정하였다.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348쪽.

5)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349-355, 370-394쪽.

난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1634년 2월에는 차하르 립단 칸이 멀리 이동하였고 그 部衆이 離散하였는데 그중 1천 명이 後金에 투항하였다. 3월에는 차하르와 오르도스가 合兵하여 寧夏를 침범하였다. 4월에는 歹打兒漢, 吉囊 등이 3만 기를 끌고 明朝에 투항할 것을 청하였고, 宣府大同에서 5,200인이 투항하였다. 이때 립단 칸은 더욱 西遷하였다. 그의 部衆 3만 인이 獨石口 밖에 있었는데 後金에 투항하였다. 6월에는 寧夏 總兵이 차하르를 棗園堡에서 공격하여 1400여 명을 죽였다. 7월에는 차하르 립단 칸이 寧夏 廣武營을 공격하였다. 8월에는 洪承疇가 延綏에 있는 몽고인을 공격하여 400여를 죽였다. 9월에는 차하르 립단 칸이 威寧海子에 가서 駐牧하였다. 11월에 차하르의 酋長 把喇獨兒가 부중 1천 인을 이끌고 清水河에 駐牧하고, 大同 殺虎堡에 와서 求市하였다. 차하르 부중 1천 인이 後金에 투항했으며, 2천이 張家口에 주둔하며 茶米의 貨賣를 요구하였다.

1634년 11월 明朝에서는 차하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侍讀 倪元璐는 차하르에 대해 市賞을 예전처럼 하여 後金으로 투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宣大 總督 楊嗣昌은 차하르 부락이 실은 수만이 있는데 小王子가 歸化城에 이르러 정월을 기다려 講賞하고, 開市를 요구할 것인데 이들을 剿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절하면 적을 도와주게 되므로 계책을 써 市賞을 이용하여 잠시 羈縻함을 보이는 것이 일책이다'고 하였다.

1635년 1월 차하르 립단 칸의 妻와 자이상들이 약 3천 人과 馬 500두를 끌고 와 明 변경에서 駐牧하였다. 립단칸의 妻가 이전에 乞市했으나 허락하지 않자 다시 大同에서 求關했다. 1635년 2월에는 後金兵 數萬이 西虜 河套路 차하르를 추격하여 차하르의 잔여세력을 수습하였다. 後金兵이 宣府에 이르러 립단의 처 囊囊 土戶가 2천인을 이끌고 後金과 통하고 張家口를 범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립단 칸은 죽고, 아들은 어렸으며, 妻는 더욱 쇠약해져 자립할 수 없었다. 6월 後金兵이 河套에 들어가 차하르 립단 칸의 妻와 1만여 인을 거두어 東行하였다.<sup>6)</sup>

6) 『明史紀事本末補遺』 卷三, 「掉漢寇邊」.

차하르부의 동요 상황은 후금에 투항하는 차하르부의 유민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後金에 投降한 차하르 流民의 사례를 보면 투항자의 규모도 일정하지 않고 투항 시기도 장시간에 걸쳐 있어 이들이 따로따로 분산되어 유랑하고 있다가 투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항자들을 통하여 립단 칸의 통합체제 모습과 그것이 붕괴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1633년 4월 차하르 립단 칸 소속 兩翼 바야라 統領 大臣(大總管) 塔希海虎 魯斯 자이상이 20인과 마 100, 낙타 20필을 끌고 도망하여 왔다. 그는 구사어전인 綽圖 자이상이라는 자가 자신의 牧地로 돌아가려고 하자 립단 칸이 가지 못하게 하여 牧民들이 빈궁하게 되었고 綽圖가 탄 말을 쏘아 죽이고 職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하를 이렇게 대하는 자와 함께 살수 없다고 생각하여 도망하였다고 말하면서 '차하르 한은 殘虐不道하여 國人이 亂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립단 칸이 차하르에 대한 통합 강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차하르민의 반발이 심함을 전하였다. 며칠 후에도 차하르 杭愛 지방에서 7인이 도망하여 왔다.<sup>7)</sup>

1634년 1월 차하르의 遺民이 席爾哈席伯圖 지방에 흩어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sup>8)</sup> 차하르 립단 칸의 친숙부인 毛祁他特 타이지는 도망하여 코르친의 투시여투 지농에게 있다가 1634년 4월에 다시 後金에 來朝하였다. 1634년 4월 乙未日에는 滿朱習禮 胡土克圖 라마가 後金에 와서 차하르의 상황을 전하였다.<sup>9)</sup> 그리고 1634년 5월 25일에는 차하르 립단 칸 소속 투바 지농의 2인이 도망하여 왔고,<sup>10)</sup> 6월초에는 차하르의 투항자가 '나는 차하르국에서 도망해 왔다. 나와 같은 자 1천여 戶가 모두 도중에 있다'고 전하였다. 원정에 나섰던 후금에게도 차하르의 유민들은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립단 칸을 따라 갔다가 되돌아오는 차하르부 布顏圖 타이지의 부종을 만나 투항시키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200여인을 죽이고, 부녀 아이 140인, 낙타 34, 마 25, 우 440, 려

7) 『太宗實錄』 卷 13, 天聰 7年 4月 乙丑, 186-187쪽.

8) 『太宗實錄』 卷 17, 天聰 8年 1月 戊申, 226쪽.

9)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5月, 240쪽.

10)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5月 庚戌, 245쪽.

8. 양 120을 노획해서 가지고 왔다. 또 라마 1인과 俄爾寨圖·退圖 3인이 戶口 100, 弓手 150, 마 70, 타 124, 우 206, 양 1000을 이끌고 이동하는 무리를 데리고 왔으며, 시라무렌 하원에서 40여 명의 차하르 도망민들을 붙잡았고, 또 차하르민 100호를 만나 초항하였으나 痘疹(천연두)가 있어 데려오지 않았다.<sup>11)</sup>

6월 21(乙亥)일에는 5명의 차하르 자이상이 남자 7백인, 가축 2천인, 가축을 이끌고 來歸하였고, 6월 23(정축)일에는 차하르 투바 지농 속하의 4인이 와서 투바 지농이 귀부하려고 한다고 전하며 투바 지농은 '차하르 한은 부도하여 國人을 괴롭히고 학대하는데, 後金 한은 官人을 우대하고 德과 威勢가 天下에 미친다고 듣고 來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투바 지농이 1천 戶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이때 이전에 립단 칸에게 병합되었던 칼카의 바가다르한도 함께 투항하여 왔다.<sup>12)</sup> 7월 6(庚寅)일에는 5인의 지도자가 부하 400여호를 이끌고 투항하였다.<sup>13)</sup> 歸化城으로 갔던 부대는 차하르의 자이상 8명과 지농 1명이 립단 칸의 妻 高爾 土門 福金과 함께 1200戶를 이끌고 來降하는 것을 만나 먼저 자이상들을 데리고 7월 25일 흥타이지의 行在(應州城)로 왔다.<sup>14)</sup>

립단 칸의 西遷 이후 남아 있던 차하르민 가운데 일부는 明朝에 투항하였는데 이들 중 반은 山海關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반은 大同宣府에 남아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大同 守吏가 투항한 몽고인을 모두 살해하려고 하자 그를 죽이고 895명이 後金에 투항하기도 하였으며<sup>15)</sup> 1634년 윤8월 12(乙未)일에는 우너거가 得勝堡에서 나오면서 陽和로 도망했던 몽고인 470인을 만나 데리고 왔다.<sup>16)</sup>

1634년 윤8월 7(庚寅)일에는 차하르 噶爾馬 지농 등이 30인을 보내어 6천 사람과 家口를 이끌고 투항하겠다고 말하고 또 차하르 립단 칸이 천연두로 打草

11)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6月, 246-249쪽.

12) 『清初內閣史院滿文檔彙編』(上), 天聰 8年 6月 28日, 92-93쪽. ; 『太宗實錄』 天聰 8年 6月 壬午, 250쪽.

13) 『太宗實錄』 卷 19, 天聰 8年 7月 庚寅, 251쪽.

14) 『太宗實錄』 卷 19, 天聰 8年 7月 己酉, 253-254쪽.

15)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庚寅, 262쪽.

16)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乙未, 263쪽.

灘 지방에서 죽었고 그 아들과 국민이 모두 後金에 투항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윤8월 22(乙巳)일에는 투항하는 몽고 官員 1백여 명의 명단이 실려 있는 책이 도착했다. 1634년 윤8월 홍타이지는 두 통의 편지를 留守하고 있는 버일러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는 그간의 對明 작전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하르 소식이었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차하르에서 투항한 투바지농을 비롯한 20여 명의 자이상과 克西克騰部, 蕭齊忒部, 칼카부의 타이지 230인, 차하르한의 8대 푸진(福金) 중 1인 등의 투항자가 있으며, 戶口는 4천여이고 낙타는 6천여, 그리고 噶爾馬 지농 등의 투항 남자 6천과 립단 칸의 처 2인 등이라고 결산하였다.

차하르에 병합된 후 칼카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료가 거의 없는데 이 편지에서는 칼카의 버일러들의 소식도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칼카의 바가다르한은 後金에 투항하였고, 자이사이는 輜重을 後金에 투항한 자들에게 약탈당한 후 生死가 불분명하였다.<sup>17)</sup> 이후에도 또 칼카의 엉거더르 어푸의 조카가 차하르에서 後金으로 도망해 오다가 피살되었고, 파혼의 아들도 피살되었다. 칼카 어푸 구르부시의 속하인이 도망오기도 하였다.<sup>18)</sup> 이로 보아 립단 칸에게 병합되었던 칼카와 아오한·나이만·카라친·투메트 등의 몽고민은 모두 립단 칸의 통제 하에 있다가 립단 칸 사망 후에 차하르의 유민과 함께 분산되어 유랑하였고 유랑자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 서로 약탈하거나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34년 9월 後金軍이 瀋陽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몽고의 投降은 계속되었다. 9월 말 아시다르한이 차하르 몽고인 1천 인을 이끌고 黃河를 건너 투항하여 왔고, 4천 인은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 渡河하여 來歸할 것이라고 보고했다.<sup>19)</sup> 11월에는 400호가 黃河를 건너 투항하여 시라무렌 지방에 머물러 있었고, 얼음이 언 후 5천호 2만명이 건너와 투항하였다.<sup>20)</sup> 1634년 립단 칸의 사

17) 『太宗實錄』卷 20, 天聰 8年 閏8月 庚寅, 261-263쪽.

18) 『太宗實錄』卷 20, 天聰 8年 閏8月, 264쪽.

19) 『太宗實錄』卷 20, 天聰 8年 9月 壬午, 270쪽.

20) 『太宗實錄』卷 21, 天聰 8年 11月 戊辰, 278쪽.

망을 전후로 하여 차하르민이 집중적으로 後金에 투항했지만 투항 행렬은 1635년에까지 이어졌다. 3월 20일에는 차하르의 12인의 암반이 남 1,404인, 妻子가축 등을 이끌고 來投하였다.<sup>21)</sup>

1635년 립단 칸의 아들 어르케 콩고르를 복속시키러 출병했던 부대는 행군 도중 립단 칸의 妻 니양니양 太后와 소놈 타이지가 약 1500호를 이끌고 투항하려고 오는 것을 만나 瀋陽으로 보냈다.<sup>22)</sup> 소놈 히야 타이지는 6월 24일 瀋陽에 도착하였는데 총 28인의 암반, 남자 1,395명, 家口 5,438인을 이끌고 왔다.<sup>23)</sup> 이때의 투항자 내용은 표9)와 같은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유랑하고 있던 몽고 유목조직의 대체적인 규모를 알게 해준다. 한 사람의 유목 지도자는 평균 男 280명과 1000명으로 이루어진 유목조직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는 평균 5-6인의 암반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5개의 유목 조직이 모여 5,430명의 더 큰 조직을 이루고 있다.

표1) 차하르 투항자 집단 규모의 한 사례

	소놈 히야 타이지	곰부 타이시	치천	우방 효쇼치	특토노이 두랄	합계
암반	28					28
男	386	382	394	100	133	1,395
口	1,544	1,424	1,562	373	633	5,430

출전 : 『舊滿洲檔』, 天聰 9年 6月 25日, 190-1쪽.

전후의 사정을 볼 때 차하르는 립단 칸이 사망한 이후 어르케 콩고르가 이끌고 있던 립단 칸의 遺民들은 주변의 다른 몽고 버일러들의 병탐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後金軍이 도착하기 직전에 오르도스國의 지농이 와서 차하르의 어르케 콩고르를 자기의 속하로 삼겠다고 맹약을 체결하고 갔다. 이를 알

21) 神田信夫松村 潤岡田英弘 譯註, 『舊滿洲檔』, 東洋文庫, 1972, 天聰 9年 3月 20日, 90-91쪽.  
: 『太宗實錄』 卷 23, 天聰 9年 3月 庚午, 299쪽.

22) 『舊滿洲檔』, 天聰 9年 5月, 150쪽.

23) 『舊滿洲檔』, 天聰 9年 6月 25日, 190-1쪽. : 『太宗實錄』 卷 23, 天聰 9年 6月 壬寅, 311쪽.

고 後金軍은 곧바로 추격하여 오르도스 지능을 다시 데리고 왔다. 만주 버일러들은 오르도스 지능을 拘留하고 '너희에게 있는 차하르의 재물은 어떤 것이라도 모두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 전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차하르의 암반들에게 '오르도스國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이라도 모두 세어서 쓰라'고 오르도스國으로 보내어 차하르의 어르커 추후르의 妻와 國人, 20인의 암반, 1,000여 家의 民 등 일체를 가져왔다.<sup>24)</sup>

릭단 칸 사후의 차하르에 대해 아루의 칼카 즉 外칼카도 병합을 시도하였다. 외칼카의 마하 사마디 세첸 한, 투시여투 한, 세첸 지능 등은 後金으로 투항하려고 하는 차하르의 소놈 히야 타이지에게 편지를 주어 흥타이지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또 차하르한의 푸진 수타이 太后와 아들 콩고르 타이지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흥타이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립단 칸은 더 이상 몽고國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지만 자신들은 건재하므로 後金과 使者를 왕래하자는 後金과의 修交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sup>25)</sup> 또 립단 칸의 妻 수타이 太后, 아들 콩고르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衆人에게 추대된 마하 사마디 세첸 한의 旨. 太后, 아들 콩고르, 절머 다른 버일러를 비롯한 자이상들에게 글을 보낸다. 전에는 흥 버일러를 잡아 보내고 말을 서로 공손히 하여 잘 지냈다. 후에도 나쁜 일 없었지만 정치가 어지러워져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한없고 敵이 아니다. (립단)한이 죽어 너희들이 모두 來歸한다는 것을 듣고 가을부터 보초에게 확인시켰다. 우리는 한과 同族이다. 玆鮮(만주)은 너희들에게 어전(主)이다. 지체 말고 來歸하면 된다. 겉옷과 속옷처럼 太后는 내 妻의 동생이다. 다른 데 간다고 하면 道統으로서나 血統으로서나 나에게 가깝다. 再三再四 마음 속으로 생각해라.<sup>26)</sup>

외칼카의 세첸 한은 립단 칸이 사망한 이후 줄곧 차하르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들이 後金으로 투항하려는 것을 알고 투항하려면 主從 관계를 맺어야 하는

24) 『舊滿洲檔』, 天聰 9年 5月, 154-155쪽.

25) 『舊滿洲檔』, 天聰 9年 5月, 157-158쪽.

26) 『舊滿洲檔』, 天聰 9年 5月, 158-159쪽.

後金에게 가지 말고 자신에게 투항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 때문에 後金과 마찰이 있을까 우려하여 友好 관계를 유지하자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릭단 칸의 푸진 수타이 太后와 아들 어르커 콩고르가 後金軍에게 쉽게 투항하였던 것은 이처럼 대외경제적으로는 이미 對明 관계가 단절되었고, 내부 정치적으로는 립단 칸이 이루었던 통합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오르도스나 외칼카 등의 병합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립단 칸의 아들로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콩고르의 경우도 이러했는데 다른 타이지나 타부낭들은 자신들의 정치조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後金이나 明으로의 투항을 실행했을 것이다. 콩고르와 함께 투항했던 아치투 타이시라는 암반이 홍타이지에게 '우리의 君主 한은 天命을 拒逆하지 못하고 죽었다. 당신 한은 福이 많아 우리 차하르國은 모두 당신에게 왔다'고 말하고 먼저 투항했던 몽고의 암반들에게 '너희들 암반들은 모두 나보다 尊貴하게 지내왔다. 한이 죽었다고 한의 妻子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버리고 來投하였다. 너희들이 어찌 암반인가'라고 힐난했던 것을 통해서도 당시 몽고의 암반들이 생존을 위해 後金으로의 투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sup>27)</sup>

### 3. 후금의 차하르 병합

#### 1) 유민수습

1633년 6월 홍타이지는 明朝鮮 차하르 三者를 정벌하는데 어디에 먼저 用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버일러·암반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말하게 하였다. 그동안 진행해 온 大明戰略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6명이 의견을 말하였는데 구체적인 전략에는 조금씩 차이가

27) 『舊滿洲檔』, 天聰 9年 7月 3日, 199-200쪽.

있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약탈을 통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계속 明朝에 대해 공격을 해야 하고 차하르와 朝鮮 문제는 그런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양구리(楊古利)는 가능하다면 일년에 두 번씩 明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차하르에 대해서는 明을 정벌할 때 차하르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즉 차하르가 가까이에 있으면 대비하거나 정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後金이 明을 정벌하면 차하르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므로 다시 정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sup>28)</sup>

만주의 버일러들은 後金の 목표는 明朝를 붕괴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後金 내부의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할 수도 없으므로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明朝의 정치가 부패하고 농민반란이 일어나는 등 쇠퇴의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 즉시 明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後金の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明朝와의 和議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漢人 관료들 중에는 中原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만 해서 人心을 얻을 수 없으므로 和議도 함께 진행하여 많은 세력을 後金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홍타이지는 결국 和議와 戰爭을 병행하는 후자의 전략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入關하기 2년 전인 1642년 이미 對明 전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入關을 재촉하는 의견에 대해 '北京을 곧바로 취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北京을 취하는 것은 큰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먼저 양쪽에서 찍어 들어가면 큰 나무는 저절로 쓰러진다'고<sup>29)</sup> 말한 것으로 보아 그의 對明 전략은 1643년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對明 전략에 골몰하던 홍타이지는 차하르와 직접적인 충돌은 회피하려고 하였다. 1632년 정벌에서 립단 칸의 西遷을 확인하였고 이후 차하르의 동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립단 칸을 추격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8) 『太宗實錄』卷 14, 天聰 7年 6月 甲戌, 194-198쪽.

29)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初內閣史院滿文檔案譯編』(上), 光明日報出版社, 1989, 479쪽.

그런데 차하르의 동요가 계속되자 홍타이지는 1634년 1월 차하르의 遺民 이 席爾哈席伯圖 지방에 흩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戴靑 타부낭과 布哈 타부낭 등 암반 7인에게 몽고의 니루마다 甲兵 1명씩과 外藩 몽고 바린갈카아루 아바가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정벌하도록 하였다.<sup>30)</sup>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번 정벌도 몽고의 병력만으로 정벌하게 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sup>31)</sup>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차하르 문제의 해결은 對明 전략에서나 정치체제의 강화 면에서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차하르의 동요 상황을 보고 차하르 유민 수습과 對明 약탈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1634년 4월에 차하르 립단 칸의 친숙부인 毛祁他特 타이지가 도망하여 後金에 來朝하였고, 이어 滿朱習禮 胡土克圖 라마가 後金에 왔다. 홍타이지는 이들을 환영하며 우대하였다. 라마에 대해 이처럼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이들은 모두 後金이 차하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32)</sup>

1634년 5월에 홍타이지는 차하르 유민을 거두어들이는 한편 장성지역의 明朝 변성을 공격하여 和議를 요구하고 약탈하기 위한 정벌을 단행하였다. 정벌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홍타이지는 버일러-암반들에게 明을 정벌하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물었다. 모두들 山海關 大路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자 홍타이지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제시했다.

버일러 암반들의 의논은 軍機에 맞지 않는다. 지금 우리 大軍은 곧바로 宣府와 大同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몽고 차하르국은 전에 우리 兵에게 패하여 心膽이 모두 찢어져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들의 버일러와 암반들은 장차 우리에게 歸降할 것이므로 우리가 가면 틀림없이 도중에서 만날 것이다. 너희 버일러들은 의복을 많이 마련해서 저들 來降하는 버일러 암반들에게 賞으로 주어라. 우리 군대가 大同으로 가서 정벌하고 또 차하르의 來歸 버일러 官民을 收納하는 계획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sup>33)</sup>

30) 『太宗實錄』卷 17, 天聰 8年 1月 戊申, 226쪽.

31) 『清初內閣史院滿文檔案譯編』(上), 天聰 8年 2月 19日, 67쪽.; 4月 21日, 77쪽.

32) 『太宗實錄』卷 18, 天聰 8年 5月, 240쪽.

33) 『太宗實錄』卷 18, 天聰 8年 5月 丙申, 241쪽.

홍타이지는 차하르 몽고가 분산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明 大同 지역 공격과 차하르 遺衆 收拾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목표의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홍타이지는 內庫에서 緞帛을 내어 각종 의복과 모자와 신발, 弓矢안장 등 투항하는 차하르의 버일러들에게 줄 물건을 만들게 하였고, 출정할 버일러들에게도 각기 의복 등을 만들게 했다. 또한 사자를 보내 明의 변경에서 駐牧하고 있는 차하르 몽고인들을 招撫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部落을 管掌하는 자이상인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姓名을 쓰지 않는다. 나는 차하르가 西遷한 이래 남겨진 部衆은 모두 明의 변경 밖에서 駐牧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곳에 거처하는 것보다 나에게 歸降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너희 자이상 등이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舉國來降하면 그 國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전부 등용할 것이다. 만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明의 변경에서 安居하고자 한다면, 전성기의 차하르도 자존하지 못하고 西海 지방으로 도망했는데 너희들은 또한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만일 나에게 歸降하지 않고 明에 歸降하겠다면, 明과 나 兩國의 強弱을 너희가 헤아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나와 너 兩國은 言語는 다르지만 衣冠은 같다. 이러한 明人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나에게 來歸하는 것이 어떤가? 너희가 마음이 편한 것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온 衣冠과 體貌를 바꾸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다. 또 전에 明國에 귀부했던 右翼 土門 몽고 등은 窮年累月 집에 거처할 수 없고 妻子와 만나지 못하고, 누차 우리 兵에게 살해당하였으며, 남은 자들도 明인이 전쟁터로 내몰아 목숨을 疆場에 내맡기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目睹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도 너희의 편한 대로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大軍이 출병하여, 만약 하늘의 도움으로 땅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그때에 撫養해달라고 요구해도 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 明의 토지를 얻게 되면 西(靑)海로 도망간 자도 安居하기 어려울 것인데 明에 歸附한 몽고는 어떠하겠는가?<sup>34)</sup>

홍타이지는 출병하기에 앞서 또한 留守하는 지르갈랑 버일러와 암반들에게 각종 戰略을 지시하였다. 출병한 사이에 明軍이 배후를 공격할 것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특히 外藩 몽고가 침공당할 것에 철저히 대비하여 몽고 衙門의

34)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5月 丙申. 241-242쪽.

관원 扈什布溫太와 4인을 남겨 그일을 맡도록 하였다.<sup>35)</sup> 이번의 정벌에서도 마찬가지로 몽고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5월 20일에 출병하여 24일에 두르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카라친·투메트부의 馬步兵 5000 명과 만났고 28일에는 바린·나이만부의 병력과 만났다. 6월 1일에는 아루부의 병력과 합류하였고 7 일에는 자루트·우루트·아루웅니우트의 병력과 합류하고 軍律을 반포했다.<sup>36)</sup>

後金軍은 진군하는 도중 곳곳에서 유랑하는 차하르 유민을 만나기 시작했다. 출병한 직후인 1634년 6월초에는 차하르의 투항자가 '나는 차하르국에서 도망해 왔다. 나와 같은 자 1천여 戶가 모두 도중에 있다'고 전한 정보에 따라 잉얼타이와 覺羅 布爾吉 등에게 2천 병을 이끌고 가서 그들의 소재를 탐색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홍타이지는 이들 투항자들의 首領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八旗에 분급하였다. 이때 八旗 버일러들이 준비했던 의복을 주고 식량도 지급하여 심양으로 보냈다. 이외에도 잉얼타이 등은 락단 칸을 따라 갔다가 되돌아오는 차하르부 布顏圖 타이지의 부중을 만나 투항시키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200여인을 죽이고, 부녀 아이 140인, 낙타 34, 마 25, 우 440, 려 8, 양 120을 노획해서 가지고 와서, 초항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모두 죽였다고 보고하여 賞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죽지 않고 도망했던 30여인이 와서 '그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 우리는 투항하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도살했다'고 말하여 잉얼타이 등은 賞을 회수당하였다. 布彥代 등의 부대도 라마 1인과 俄爾寨圖退圖 3인이 戶口 100, 弓手 150, 마 70, 타 124, 우 206, 양 1000을 이끌고 래귀하는 자들을 만나 데리고 왔으며 시라무렌 하원에서도 40여 명의 차하르 도망자들을 붙잡았다. 또 차하르민 100호를 만나 초항하였으나 痘疹(천연두)가 있어 데려오지 않았다.<sup>37)</sup>

6월 21(乙亥)일에는 5명의 차하르 자이상이 남자 7백인, 가축 2천인, 가축을 이끌고 來歸하자 홍타이지는 이들에게 환영연을 베풀어주었다. 6월 23(정축)일에는 차하르 투바 지농 속하의 4인이 와서 투바 지농이 귀부하려고 한다

35)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5月 壬寅, 243-244쪽.

36) 『太宗實錄』 卷 18-19, 天聰 8年 5月-6月, 245-246쪽.

37) 『太宗實錄』 卷 18, 天聰 8年 6月, 246-249쪽.

고 전하였다. 투바 지농은 '차하르 한은 부도하여 國人을 괴롭히고 학대하는데, 後金 한은 官人을 우대하고 德과 威勢가 天下에 미친다고 듣고 來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홍타이지는 투바 지농이 투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보내 이들을 맞이하도록 하고 투바 지농이 1천 戶를 데리고 도착하자 투항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지농은 몽고에서 고위직이므로 홍타이지 뿐 아니라 만주의 버일러들, 몽고의 버일러들이 모두 투바 지농과 抱見禮를 하는 등 우대하였다. 투바 지농을 비롯한 그의 아들과 사위들도 홍타이지에게 많은 예물을 바쳤다. 이때 이전에 립단 칸에게 병합되었던 칼카의 바가다르한도 함께 투항하여 왔다.<sup>38)</sup>

後金軍은 투항하거나 유랑하고 있던 차하르의 유민을 수습하는 한편 明 변경을 약탈하면서 和議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後金軍은 각기 나뉘어 明 내지로 들어갔고 일부 부대는 歸化城을 거쳐 차하르의 도망민을 초무한 후 明 변경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때 며칠 전에 투항했던 차하르의 투바 지농과 자이상들도 출병하여 宣府 지역의 약탈에 참여하였다.<sup>39)</sup>

변경 약탈과 對明 和議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차하르민의 투항은 계속되었다. 7월 6(庚寅)일에는 5인의 지도자가 부하 400여호를 이끌고 투항하였다.<sup>40)</sup> 歸化城으로 갔던 부대는 歸化城에서 차하르의 자이상 8명과 지농 1명이 립단 칸의 妻 高爾土門 福金과 함께 1200戶를 이끌고 來降하는 것을 만나 먼저 자이상들을 데리고 7월 25일 홍타이지의 行在(應州城)로 왔고<sup>41)</sup> 나머지는 이후에 도착하였다.

홍타이지는 流浪하고 있거나 後金으로 투항해오는 차하르민 뿐만 아니라 明으로 투항한 차하르민에 대해서도 병합을 시도하였다. 윤8월 초 大同에 이르렀을 때 홍타이지는 明으로 투항한 차하르 몽고인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明의 官員에게 보냈다.

38) 『清初內閣史院滿文檔案譯編』(上), 天聰 8年 6月 28日, 92-93쪽. : 『太宗實錄』天聰 8年 6月 壬午, 250쪽.

39) 『太宗實錄』天聰 8年 7月 己未, 251쪽.

40) 『太宗實錄』卷 19, 天聰 8年 7月 庚寅, 251쪽.

41) 『太宗實錄』卷 19, 天聰 8年 7月 己酉, 253-254쪽.

滿洲國 皇帝가 大同 宣府 陽和의 각 官員에게 서신을 보낸다. 차하르와 나는 모두 邊外의 나라인데 그가 不道하기 때문에 興師하여 征討하였다. 차하르는 멀리 도망하였고 國人은 모두 나에게 來歸하였다. 나머지 중에 朵內額爾克楚虎爾, 多克辛額爾克, 勞漢塔布囊, 得爾格爾, 褚陽, 塞特爾 6인이 차하르 한의 2 妻와 1 妹와 그 部衆을 데리고 榆林 서쪽을 통해 너의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밖에 또 들으니 차하르 부증은 寧遠으로 보낸 것이 반이고, 이 곳에 남아 있는 것이 반이라고 한다. 모두 내가 攻討해서 潰散시킨 餘孽인데 너희들은 어찌 이들을 收納했는가? 너희가 받아들여 모아 두어도 결국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 무리들은 결국 나에게 이용되고 너희를 도울 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들 무리를 모두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쉽게 내버려 두겠는가?<sup>42)</sup>

1634년 윤8월 7(庚寅)일에는 립단 칸의 사망 소식이 後金에 전해졌다. 차하르 噶爾馬 지농 등이 30인을 보내어 6천 人과 家口를 이끌고 투항하겠다고 말하고 또 차하르 립단 칸이 천연두로 打草灘 지방에서 죽었고 그 아들과 국인이 모두 後金에 투항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립단 칸을 따라 갔다가 립단 칸이 사망하자 다시 長城 지역으로 되돌아 온 자들이었다. 흥타이지는 차하르의 립단 칸의 사망과 그의 아들이 투항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아시다란 등 8 암반과 兵 100명을 보내 립단 칸의 아들 어르커 콩고르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sup>43)</sup>

윤8월 22(乙巳)일에는 투항하는 몽고 官員들의 명단이 실려 있는 책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자들의 호칭을 보면 립단 칸의 관료 조직이 대개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책에는 中 투먼 구사(土門 固山)의 巴圖魯噶爾馬 지농, 擺牙喇和諾特 구사의 德參濟 왕, 寶土門 구사 多爾濟 達爾漢, 多尼庫魯克 4인을 비롯하여 小버일러(貝勒), 타이지(台吉), 자이상(寨桑), 자사굴(扎薩古爾), 세렝게(舒冷格), 다루가(達魯噶) 등의 호칭을 갖고 있는 1백여 인의 명단과 黃河 西岸에서 나중에 투항해온 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었다. 립단 칸의 정치 조직에는 투먼 구사라는 군사조직이 있었고 많은 관료들이 소속되어 있

42) 『太宗實錄』 卷 19, 天聰 8年 8月 戊辰, 256쪽

43)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庚寅, 261쪽, 壬辰, 263쪽.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高爾 투멘 구사를 관장하는 푸진(福金), 寶 투멘 구사 푸진(福金)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조직은 립단 칸의 처들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확인된 4개의 구사 이외에도 몇 개의 구사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투항한 자들은 차하르의 중추를 이루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도착하였을 때 흥타이지는 극히 우대하였다.<sup>44)</sup>

1634년 윤8월 흥타이지는 두 통의 편지를 留守하고 있는 버일리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는 그간의 對明 작전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하르 소식이었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차하르에서 투항한 투바 지농을 비롯한 20여 명의 자이상과 克西克騰部, 蒿齊忒部, 칼카부의 타이지 230인, 차하르한의 8대 푸진(福金) 중 1인 등의 투항자가 있으며, 戶口는 4천여이고 낙타는 6천여, 그리고 噶爾馬 지농 등의 투항 남자 6천과 립단 칸의 처 2인 등이라고 결산하였다.

## 2) 후금의 차하르 투항민의 편성

1634년의 정벌에서도 울지와 재화의 분배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다른 점은 그간 흥타이지의 한권 강화를 반영하고 있는 듯 획득한 수량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차하르의 투항민은 울지가 아니므로 분배하지 않고 만주 八旗에 분산 편성하였다. 차하르민의 八旗 분편 조치는 차하르가 外藩 몽고와 달리 분산되어 투항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초기 칼카의 투항자들이 八旗에 분편되었던 것과 같은 처리 방식이었다. 또한 투항자들을 八旗에 분편시키는 것은 몽고민의 생계를 八旗가 분담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몽고민을 八旗체제에 흡수시켜 이들을 통제하고 병력으로 활용하여 군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차하르민의 八旗 분편은 몇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634년 윤8월에 차하

44)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甲辰, 265쪽, 庚戌, 265-266쪽.

르에서 투항해 온 버일러·암반들과 그들에게 예속된 男丁을 八旗에 분산 예속시켰는데 내용은 표10)과 같다. 전체 인원 2,020명의 남자를 八旗에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편하여 贍養하게 했고 각 旗에 1-3인의 암반을 분배했다.<sup>45)</sup>

표2) 1634년 윤8월 차하르민의 팔기 분편 내용

소속	암 반	남자	타	마	우	양
正黃	阿牙克喀塔喜木里克 喇嘛 寨桑, 古木德塞臣 寨桑	245	242	180	376	2,270
鑲黃	班珠 杜稜, 布顏代, 博爾庫	273	251	222	1,100	4,640
正紅	毛海業爾登 寨桑	233	136	89	440	2,030
鑲紅	叟格都喇爾, 塞冷	268	196	182	617	3,650
正藍	兀伯頰扎薩古爾, 達爾馬和碩齊	264	276	175	709	2,920
鑲藍	顧實 寨桑, 喇戶	247	176	170	806	3,090
正白	卓果諾 寨桑	241	143	48	255	1,700
鑲白	額林臣戴青, 多爾濟塔蘇爾海, 達賴 杜稜	249	194	161	588	3,920
합계	15 인	2,020	1,614	1,227	4,891	24,220
평균	1,875 인	252.5	201.7	153.2	610.1	3027.5

출전: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264쪽.

1635년 1월에도 차하르에서 투항해 온 암반 86명과 男丁 3,211명을 八旗에 분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2)과 같다. 이때의 분편에서는 장정의 수에 비해 암반의 수가 유난히 많은데 이는 당시 차하르의 집중적인 투항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어서 1635년 9월에는 오르도스 지농에게서 데리고 온 차하르민 798丁을 결원이 있는 기에 할당하여 주었다. 正白旗에게는 바랑 이터길투의 160丁, 鑲白旗에게는 버키 자이상의 166丁, 正藍旗에게는 오카나의 151丁, 鑲藍旗에게는 토토호 두라갈의 150丁, 鑲紅旗에게는 커무키 이 자사굴의 171丁을 分編하였다.<sup>46)</sup>

45)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264쪽.

표3) 1635년 1월 차하르민의 만주팔기 분편 내용

소속 旗	官 人	丁(하하)	소속 旗	官 人	丁(하하)
正黃	20	901	正紅	12	437
鑲黃	12	365	鑲紅	10	321
正白	6	118	正藍	6	436
鑲白	10	457	鑲藍	8	176
			합계	86	3,211
			평균	10.75	401.3

출전 : 『舊滿洲檔』, 天聰 9年 正月 22日, 16-18쪽. ; 『太宗實錄』 卷2, 287쪽.

세 차례에 걸친 分編을 종합하여 보면 총 6029명을 正黃旗에 1146 명, 鑲黃旗에 638 명, 正紅旗에 670 명, 鑲紅旗에 760 명, 正藍旗에 850 명, 鑲藍旗에 574 명, 正白旗에 519 명, 鑲藍旗에 872 명을 각각 분배하였다. 分편의 내용에는 모두 관인(암반) 106명의 명단이 밝혀져 있는데 이외에도 이름이 실려 있지 않은 많은 관인이 있었다. 이들은 투항할 때 몽고민을 인솔해 온 자이거나 소유자로서 八旗에 예속된 이후에도 몽고민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거나 암반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홍타이지는 투항해 온 차하르의 암반들에게도 재물을 지급하였다. 홍타이지는 1634년 윤8월의 分編 이후 자신의 正黃旗에 소속된 두 자이상에게 牛 100, 羊 1천 마리를 주고 부하 궁핍자들에게 均分하게 하고 혼자 취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7旗에 소속된 차하르 民에 대해서도 각 버일러들에게 牛·羊을 지급해 주도록 지시했다.<sup>47)</sup> 또 1635년 1월에도 투항한 차하르의 자이상·타이지·타부낭·허야 등 암반 127인에게 의복·무기·牛·羊·馬·奴僕·屯莊 등을 賞賜하였고, 이들 암반에게 소속된 191인에게는 馬匹과 朝衣 등의 재물을 차등을 두어 賞賜하였다. 또 祁他特 타이지에게는 인 10명, 우 6두가 딸린 를 특소(莊屯) 4개 소를 賞賜하고, 高爾土門 固山 福金과 혼인시켰다.<sup>48)</sup> 이때 賞

46) 『舊滿洲檔』, 天聰 9年 9月 9日, 274-275쪽.

47)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辛丑, 264쪽.

48) 『舊滿洲檔』, 天聰 9年 1月 22日, 18-23쪽. 『太宗實錄』 卷 22, 天聰 9年 1月 癸酉, 287-288쪽.

『清實錄』에서는 장둔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滿文老檔』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어 『清實錄』

賜를 받은 자들 속에는 1634년에 八旗에 분편되었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賞賜는 암반들의 신분이나 실력에 따라 각기 다른 물건을 차등있게 했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홍타이지가 이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주 八旗에 소속된 차하르민은 1635년 이전에 투항한 몽고민이 몽고 八旗로 분리 편성될 때에도 만주 八旗에 소속된 채로 남아 있었다.

차하르민의 편성 과정에서 립단 칸의 妻들에 대한 처리 방식은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다. 립단 칸의 처들은 8대 푸진(福金)이라 칭해지는데 이들 중에는 '土門 固山'의 일을 관장하는 妻의 예에서와 같이 民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알탄의 처 三娘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고에서 한의 푸진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였고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여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상당했다.<sup>49)</sup> 後金에 투항한 립단 칸의 처들은 홍타이지와 버일러들이 娶하였는데 여기에는 後金の 차하르 병합이라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재산 획득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타이지는 처음 寶 투멘 푸진을 娶하라는 버일러들의 권유를 고사했으나 민심을 위무해야 한다는 버일러들의 강권에 의해 寶 투멘 푸진을 받아들였다.<sup>50)</sup> 1635년 몽고의 암바 푸진 니양니양 太后가 來投해 왔을 때 홍타이지는 암바 버일러에게 '이 푸진은 차하르 한의 이름있는 암바 푸진이니 (암바 버일러가) 娶하라고 하였는데 암바 버일러(大善)는 '이 푸진은 암바 푸진이기는 하지만 財貨와 家畜이 없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수 있겠는가? 차하르 한의 다른 암바 푸진 수타이 太后가 도착하면 내가 娶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홍타이지는 '그 수타이 太后 푸진은 버일러들이 의논하여 지르갈랑 아거의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푸진을 지르갈랑 아거에게 주자고 나에게 상언하여 나도 좋다고 해서 결정되었다. 먼저 동생에게 주겠다고 말한 후에 형 당신에게 준다면 옳지 않다. 내 입으로 한 말을 食言하면 되겠는가? 이 푸진을 娶하

과 『滿文老檔』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49) 푸진들의 재산 소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青木富太郎, 『明代內蒙古のオルトについて』, 『東洋史研究』 30-1, 1971을 참조.

50) 『太宗實錄』 卷 20, 天聰 8年 閏8月 癸丑, 266-267쪽.

라고 수차 사람을 보냈다. 그래도 암바 버일러가娶하지 않자 압타이 타이지·호쇼 더걸러이 버일러·아지거 타이지·호쇼이 어르케 추후르 버일러가 흥타이지에게, '이 부인에게 재화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암바 버일러는娶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에 이를 들었다면 암바 버일러에게 주라고 한이 말하는 것을諫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부인은 차하르 한의 政治의 암바 푸진이다. 한이娶하는 것이 적당하다. 他人에게 주면 안된다'고 上奏하였다. 흥타이지가 '나는 전에 한 푸진을娶하였다. 더娶하면 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버일러들은 '이것은 탈취하여 貪娶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늘이 賜與한 것이다. 한이娶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몇 번이나 上奏했다. 흥타이지는 약 1개월여를 거절했지만, 결국 버일러들의 말에 따라 니양니양 太后를娶하였다.<sup>51)</sup> 립단 칸의 푸진을娶하는 과정에서 보인 흥타이지와 암바 버일러의 태도에서 둘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관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 4. 립단 칸의 아들 콩고르의 복속

흥타이지는 차하르 원정에서 차하르 유민을 복속하고 립단의 사망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와 1634년 10월 누르하치의 靈前에 즉위 이후 8년간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甲戌(1634)년 10월 27일, 즉위한 4 孝子가 감히 父 한의 靈前에 아뢰니다. 저는 受命한 이래 八旗를 관장하는 子孫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밤낮으로 노력하여 오직 이전의 뜻을 이어받지 못할까 걱정한 것이 이미 8년입니다. 臣 등은 한 마음으로 일하고, 天地의 도움을 받고, 또 父 한이 쌓아 놓은 업적에 의지하여 이르는 곳마다 무력으로 위협하고 덕을 베풀어 주위의 敵國이 많이 歸附하였습니다. 이에 수년간에 이룩한 기쁜 일을 말하여 聖靈에 아뢰어 기쁨을 드리 고자 합니다. 지금 朝鮮은 稱弟納貢하고, 칼카 5부는 이미 모두 歸附하였고, 아르 지방 각부는 모두 來歸하였고, 카라친·투메트부도 모두 歸附하였고, 차하르

51) 『舊滿洲檔』, 天聰 9年 7月 20日, 211-213쪽.

한 형제는 먼저 歸附한 것이 반이고, 차하르 한은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우리를 피하여 서쪽 탕구트 부락으로 도망하였으나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西喇衛 古爾部落이 사는 西喇의 野地(打草灘)에서 죽었고, 그의 執政大臣들은 각기 소속민을 이끌고 모두 來歸하여 왔습니다. 이제 敵은 오직 明國이 있을 뿐입니다. ... 52)

홍타이지가 즉위 후 8년간의 업적을 총결산하여 누르하치의 靈前에 보고하였던 이유는 차하르의 병합을 계기로 對明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홍타이지는 차하르가 붕괴하자 長城 지역의 대외경제권 병합과 몽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시 後金の 대외경제의 안정과 정치체제의 강화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런 생각에서 1635년 2월초에 홍타이지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는데 먼저 漢人 관료들이 속히 明을 정벌하여 大業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속히 征伐하여 大業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時勢에 通達하지 못한 견해이다. 내가 어찌 大業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 遊畋하기만 즐거워하겠느냐? 다만 大事를 圖謀하려면 또한 기회를 보고 時勢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지금 차하르의 몽고인이 모두 새로이 來投하였는데 來投한 무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人心이 收拾되지 않았고, 城堡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가버이 출병한다면 어떻게 大業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한 내가 新舊의 歸附者에게 모두 衣服財帛馬匹家畜을 아끼지 않고 주어 養育하고, 매일 세 차례 잔치여는 것은 어찌 번잡함을 삼가지 않아서이겠는가? 바로 人心을 悅服시켜 大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人心을 收拾하지 않으면 征伐을 해도 어떻게 城堡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어떻게 野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sup>53)</sup>

홍타이지는 몽고 지배의 強化가 이루어지는 것이 明 征服의 先決 課題임을 지적하고 지금 속히 정벌하라고 말하는 것은 '小人의 淺薄한 見解'라고 한인 관료들의 정벌 주장을 일축하였다. 그리고 또 정벌을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는 '군사력을 소모하여 城池를 함락하고 財貨를 획득해서 자기 하나의 勞苦를 報

52) 『清初內閣史院滿文檔案譯編』(上), 天聰 8年 10月 27日, 118쪽.

53) 『太宗實錄』卷 22, 天聰 9年 2月 戊子, 293-294쪽.

償받으려 할' 뿐 軍國의 어려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홍타이지의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정벌을 시도하면 재물을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國力の 弱化를 초래할 뿐이므로 國力을 強化한 이후에 入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홍타이지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入關을 주장하는 漢官들을 심하게 몰아부쳐 入關 주장을 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홍타이지는 자신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래에 우리 나라가 안정된 이후 출병했을 때 明의 皇帝가 燕京을 버리고 敗走하면 追擊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追擊하지 않고 京城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가, 함락하지 못하면 포위하여 지키는 쪽이 좋은가, 明 皇帝가 講和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 내가 허락하지 않아 저들이 곤궁할 때 講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對處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 天恩을 입어 燕京을 함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民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우리 나라의 버일러 이하 諸官·거거 등은 모두 財物을 얻을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탐욕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sup>54)</sup>

홍타이지는 對明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對明 관계에 대해 말하다가 마지막에 對明관계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만주의 버일러들과 암반들이 재물을 탐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버일러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대외 경제의 확대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홍타이지가 대외경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홍타이지는 발언 속에서 入關 이후의 먼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몽고의 지배, 버일러의 지배 등 내부의 統治 強化라는 當面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되어 온 八旗制 개혁과 漢人 官僚制 확대 등의 노력으로 홍타이지는 이미 상당한 권력의 집중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入關이라는 大業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체제를 구

54) 위와 같음.

축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八旗가 공유하고 있던 권력을 한이 독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필요하였다. 즉 天命의 획득이 필요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아직 對明 전쟁에서 天命을 얻었다고 할만한 큰 성과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몽고 한권의 병합을 이용하여 天命이라는 이념의 창출을 시도했다.

1634년 윤8월 초에 립단 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홍타이지는 즉시 이르케 쿡고르의 종적을 추적하러 병력을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 왔었다. 몽고 한의 정통성을 계승한 립단 칸의 아들 이르케 쿡고르를 복속시키는 것은 몽고 지배 자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홍타이지의 권력 강화에도 중요한 이용 가치가 있었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립단 칸의 아들 이르케 쿡고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1635년 2월 26일 호쇼이 머르건 다이칭 버일러·요트 버일러·사할리안 버일러·후거 버일러를 인솔자로 하여 1만 兵을 출병시켰다.<sup>55)</sup> 이때에도 後金軍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몽고와 연합 출병했고 한편으로는 明 內地를 약탈하면서 이르케 쿡고르가 있는 곳으로 진군했다. 5월경 홍타이지는 출정했던 부대가 明 內地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寧遠과 錦州를 공격했다. 寧遠과 錦州의 明軍이 山西 지방으로 지원하러 갈 것을 예상하여 明軍의 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카라친의 경걸·완단서령·유야시라·혼진 등에게 明의 北邊으로 가서 舊賞을 달라고 하여 賞을 얻을 수 있으면 취하고, 교역할 수 있으면 교역하라고 보냈다.<sup>56)</sup> 이는 이전에 몽고가 갖고 있던 對明 경제권을 이용하여 당장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교역 자체의 목적과도, 明軍이 카라친이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서쪽으로 援兵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것이었다.

後金軍은 계속 진군하여 黃河를 건너서 4월 28일 차하르한의 아들 이르케 쿡고르의 國人이 있는 툴리투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 때 안개가 끼고 어두워 쿡고르의 국민은 後金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만주의

55) 『舊滿州檔』, 天聰 9年 2月 26日, 83쪽.

56) 『舊滿州檔』, 天聰 9年 5月 14日, 137-141쪽.

버일러들은 사람들이 놀라면 곤란하다고 兵을 정지시키고, 여허國의 긴타이시 버일러의 孫子 난추에게 그의 族叔祖 아시다르한과 하르숭가다이군을 딸려보내 '너의 누나 수타이 太后와 그의 아들 콩고르에게 "한의 命에 의해 만주의 버일러들이 大軍을 이끌고 너희를 招來하기 위해 왔다. 一物도 犯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라'고 보냈다. 난추 등이 수타이 太后의 營에 도착하여 사람을 불러 '너의 푸진 수타이 太后의 친동생 난추가 왔다'고 수타이 太后에게 고하게 하자 수타이 太后는 울면서 나와 동생을 만나 껴안고 곧바로 아들 어르커 콩고르에게 만주의 버일러들을 맞으러 가라고 말했다. 어르커 콩고르는 자이상들을 이끌고 만주의 버일러들을 맞이하였다. 만주의 버일러들은 어르커 콩고르를 이끌고 하늘에 叩頭하고 서로 抱見禮를 하였다. 만주의 버일러들은 차하르의 어르커 콩고르와 암반들이 의심을 품을까 염려하여 '우리가 어르커 콩고르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天地는 우리를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약해도 너희가 따르지 않고 逆心을 가지면 天地는 너희를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고 서약하였다. 다음날 차하르 한의 푸진, 아들 어르커 콩고르는 酒宴을 열고 낙타 馬金銀과 각종 緞을 만주의 버일러들에게 바쳤고, 만주 버일러들도 잔치를 열고 재물을 주어 答禮했다. 이 때 콩고르와 함께 투항한 암반은 모두 68명이었고, 民은 1천여 戶였다.<sup>57)</sup>

차하르의 대외경제의 상실과 립단 칸의 사망으로 차하르는 급속하게 정치적 통합이 와해되었고, 립단 칸의 아들 콩고르는 평범한 하나의 유목조직의 長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평범한 유목조직의 長들이 선택했던 것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립단 칸의 아들 콩고르의 투항은 홍타이지에게는 몽고의 한권을 병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한권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정치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後金은 몽고 지역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콩고르의 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明朝는 몽고의 투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때문에 콩고르는 결국 後金을 선택하였고 後金도 그를 우대하였다. 이로써 明朝의 建國 이후 明朝의 정책에

57) 『舊滿洲檔』, 天聰 9年 5月 150-154쪽.

의해 시작되었고 지속되었던 몽고와 만주는 분리는 종식되고 만주와 몽고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5. 맺음말

후금이 몽골 차하르부를 쉽게 병합할 수 있었던 것은 후금의 무력 우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립단 칸의 몽골 통합 실패에 기인한 한 것이라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립단 칸은 歸化城을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몽골 통합 강화와 대명경제 확대에는 실패하였다. 라마교를 이용하여 몽골 통합체제 유지를 하려고 다시 서천을 시도하였을 때 일부 세력들이 이탈함으로써 그간 립단 칸이 무력을 이용하여 수립했던 차하르부의 통합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후금의 홍타이지는 몽골의 반립단 세력을 이용하여 차하르를 견제 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은 회피하였다. 그리고 몽골이 만리장성 지역에서 이제까지 몽골이 행사하던 교역과 변경 약탈 등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차하르에서 이탈한 몽골 세력들을 수습하여 후금의 체제 내에 편입시켰다. 서천하던 립단 칸이 사망한 후 1634년 초원으로 되돌아 오던 차하르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킴으로써 누르하치가 요동을 공격할 때부터 시작된 립단 칸을 중심으로 한 몽골과의 대립은 만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만주의 차하르 병합은 단순히 적대 세력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주는 차하르 병합을 통하여 몽골의 대명경제권 소유를 정당화시키고, 몽골 연맹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다. 립단 칸이 갖고 있던 몽골 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이를 만주 한 홍타이지가 대신하는 정치체제를 창출하면서 몽골의 대외경제권도 만주 한이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차하르 병합은 후금의 대명경제 확대 가능성 증가와 이에 따른 만주 한 홍타이지의 권력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후금이 몽골을 병합을 계기로 대청 체제라는 정치적 변혁을 선언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